



개청4주년 및 청사준공기념 문화행사

양천 구민을 위한

한국 고전 민속무용의 밤



일시 : 1992. 11. 6. (금) 17:00 - 18:30

장소 : 양천구청 대강당 (3층)

양 천 구

모시는 글

한국고전 민속무용의 밤을 개최하면서 …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심신에 활기와 의욕을 더해주는 좋은 계절에
우리구의 개청 4 주년 및 신청사 준공을 맞이하게 된것을 우리 구민과 함께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지난 1988. 5. 16 개청이후 4년만에 어느구 보다도 생동감이 넘치고
아름답고 건강하며 살기좋은 양천으로 발전해가는 가운데 신청사 준공과 때를 맞추어
문화예술행사를 마련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사업으로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예창민속무용
단을 초청하여 양천구민을 위한 한국전통 고전민속무용의 밤을 개최하게 된것을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통 고전 민속무용 공연으로 구민 여러분의 건강한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연에 도움을 주신 반숙진 단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천구민의 모든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합니다.

1992. 11. 6

양천구청장 탁병오



- 국립국악원 연구반 예술회 회장
- 한국 국악동호인회 이사
- 일본 소류회 전통무용 초청 공연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사리오 공연
- 구로구민회관 대강당 민속무용 정기공연
- 강동구민회관 대강당 일본나나오시 한·일친선공연
- 올림픽공원 올림픽 4주년 기념 개막공연
- 구미공단 전국 예술제 참가 공연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 그리고 관내 기관장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예창민속무용단은 한국고유의 전통문화인 고전무용을 국내·외에 널리 보급하고 우
리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예술을 계승발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창민속무용단이 뜻있는 양천구청사 준공기념 축제행사에 출연하게 됨을 기쁘
게 생각하며

무대를 마련하여 주신 양천구청장님 이하 관내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공연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민속무용이 내·외에 널리 알려 줄수 있는 기회가 되
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양천구청사 준공기념 행사가 더욱 보람되고 양천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11. 6

예창민속무용단장 반숙진

출연

(예창 민속 무용단)



[안무지도]



〈이 영 옥〉



〈강 혜 자〉



〈김 민 정〉

[단원]



〈신 춘 화〉



〈김 동 희〉



〈손 영 순〉



〈기 명 애〉



〈홍 정 순〉



〈이 정 자〉

〈 특별출연 〉

진행순서



〈류명자〉



〈윤춘자〉



〈오영옥〉



〈강화신〉



〈김연희〉



〈정순자〉



〈이정희〉



〈김희정〉



〈김경희〉



〈남숙현〉

○ 화관무 반숙진외 6명

○ 가야금 유명자외 3명

○ 살풀이 강혜자외 2명

○ 민요 김정열·이소윤
김성민·김희정

○ 매난국죽 손영순외 3명

○ 검무 신춘화·반숙진

○ 북춤 강혜자·김민정

○ 화답·소고 흥정순외 5명

○ 사물놀이 오영옥외 3명

무용명 및 해설

(화 관 무)

-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태평성대,
요지일월이요, 순지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기야금병창)

- 우리 고유의 현악으로서 귀방에서 옛 선비들의 흥금을 울려준 애절한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한다.

(살 풀 01)

- 남도무무의 하나로써 살풀이라 “액”을 푼다. 즉 제거한다는 뜻으로써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정중동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스러운 동작으로 구성된 춤이며, 옛날에는 흰수건 대신 한지를 가지고 가신님의 “넋”이나 부모자식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을 잠시나마 달래며 …

(민 요)

- 이 민요는 경기민요로서 경기도 지방 옛 조상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임.

(매 난 국 죽)

- 매화의 부드럽고 아름다움 속에 새봄 이웃의 향기를 느끼며 …

- 난초의 새초롱한 잎의 날렵함에 연보리의 꿈을 담아, 실날같은 사랑을 간직하며 …
- 국화의 포근함속에 인간의 깊은 정과 너그러움의 정이 깃드며 …
- 대나무의 곧은 정신을 이야기해 의로움과 사람의 도리를 배우며 …

(검 무)

- 신라시대 지은 우아하고 발랄한 가면무의 일종 이었으나, 오늘의 검무는 틸을 쓰지 않고 의상은 전립 · 전복 · 전대를 입고, 칼은 무구화된 회전칼을 들고 추는 춤임.

(북 춤)

- 남장 미인이 북을 매고 흥겨운 우리 가락에 장단을 맞추어 북을 치는 활기 넘친 춤이다.

(화답 · 소고)

- 남·녀 사랑을 화합하여 사랑의 결실의 맷음을 표현하는 춤이며, 흥겨운 가락에 소고로 장단을 치며 주는 춤이다.

(사물놀 이)

- 꽹가리, 징, 북, 장고의 4가지 악기로 편성된 타악곡을 말하며, 흥에 겨워 움직이는 율동과 악기가 생동감있게 조화를 이루며, 흥의 극치를 이룬다.



MEMO

〈북 춤〉



〈궁중검무〉



〈화답〉